

AUTHOR 오덕표 (Deok-Kyo Oh)

TITLE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한국교회

IN 신학정론

vol.13 no.2 (November, 1995): 430-457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한국교회

오 덕 교

〈역사신학, 교수〉

한국 교회는 이제 신교 2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4500만 인구 가운데 교인의 수가 1200만명이 넘게 되어 전 인구의 27%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1883년 서상륜에 의하여 황해도 소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 전국적으로 현재 4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1901년 마포삼일 선교사의 집에서 김홍섭과 방기창 등 2명의 학생을 놓고 시작한 신학교는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와 무인가 신학교를 합하여 300여 개가 넘으며, 신학생 수도 5만 명은 족히 된다. 교회의 크기로 볼 때에도 크게 성장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으며,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다.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당이 이제는 거대한 빌딩 숲으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당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으로 된 교육관과 수십 수백여원이 넘는 돈으로 지은 수양관 외에도, 죽은 후에 문힐 묘지까지 장만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 크

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1. 개혁주의의 정의

한국 교회의 신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살펴보자. 개혁주의자들은 '주의'(主義)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흥미롭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애용되고 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원래, 서구의 '개혁 신앙'(the Reformed faith), 또는 '개혁 신학'(the Reformed theology)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중국인들이 이 말을 '개혁주의'라고 번역하면서 한국 교회에 소개된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 운동은 루터 파와의 신학적인 차이를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가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생활하며,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 연합하여 공동의 적이었던 로마 천주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1529년 스위스의 개혁자 쾨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0)와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독일의 마르부르그 회의(Colloquy of Marburg)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 모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루터와 쾨빙글리는 성체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나뉘어졌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름수록 점점 더 벌어져 각기 다른 신학 형태를 가질 정도로 개혁의 방향도 달라졌다. 루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중세 교회에 반대하면서 이신독의 교리를 주장하였고, 쾨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며 죄물에 대한 우상 숭배로 다시 빠져 들어간 중세교회의 이교적 요소들"을 제거하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

1) Henry Meeter,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alvinism*, 신부음

로 인해, 루터의 신학 체계를 따르는 이를 루터파, 쾰빙글리의 입장을 따르는 이들을 개혁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1)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오해

개혁주의 신학을 정의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연상한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란 화린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하나의 교의 체계이다. 1603년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의 교수 야곱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벨라기우스적인 사상을 전개하자, 개혁주의자들은 1618년에 모인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우스주의의 해독을 지적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Perseverance of the saints) 등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개혁주의의 구원론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보는 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므로 성경대로(Sola Scriptura)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교리에서 성경만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근거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면에서 개혁주의를 성경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고 다 개혁주의는 아니다. 루터도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성경만이 무오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의하여 교회를 개혁할 것을 역설하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루터파의 창시자라고 칭한다. 또한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과 펠릭스 만츠(Felix Mantz)가 쾰빙글리의 개혁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여 교회를 더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지 않고 개혁파라고 부른다.

(2)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을 구별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어떠한 신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개혁주의가 될 수 있고, 개량주의(改良主義)가 될 수도 있으며, 개악주의(改惡主義)도 될 수 있다. 즉 성경대로 개혁하자고 하면서 신학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면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어 교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신학 활동의 근거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생각한다면, 어떠한 사람의 신학이 개혁주의인지 아닌지는 그가 단지 성경대로 개혁하고자 주장하는지, 아니면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따라 해석된 성경을 근거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는 넓게는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둔 기독교 신앙을 말하며, 좁게는 존 칼빈(John Calvin, 1509-1654)에 의하여 표현된 신학으로 칼빈 이후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신학체계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의 기초를 놓은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 형성에 공헌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16세기 인물로는 쾰빙글리, 마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 피터 마터(Peter Martyr Vermigli, 1500-62), 하인리히 불링저

(Heinrich Bullinger 1504-75), 테오도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 잔키(Girolamo Zanchi, 1516-90) 등이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 체계가 다른 신학보다 성경적임을 증명하고, 다른 신학 활동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학을 고려화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곧 그들은 로마천주교회의 그릇된 신앙이나, 루터란과 제침례파의 신앙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조를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신앙고백으로는 「바젤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Basel, 1534), 「제 1 스위스 신앙고백」(First Helvetic Confession, 1536),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제네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Geneva, 1537), 「제네바 일치서」(Consensus of Geneva, 1552)가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자신의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포랑스인들은 「포랑스 신앙고백서」(French Confession, 1559), 네덜란드인들은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 독일의 라인랜드에서는 「4개 도시 고백서」(Tetrapolitan Confession, 1530)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Heidelberg Confession, 1563)를 작성하였으며, 헝가리에서는 「첸게르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Czenger, 1557), 「센도미르 일치서」(Consensus of Sendomir, 1570), 「시기스문트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Sigismund, 1614)를 만들었다.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개혁주의 신앙고백으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Scott Confession, 1560), 「39개조 신조」(Thirty-Nine Articles, 1563), 「아일랜드 신앙고백서」(Irish Articles of Religion, 16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들」(Westminster Confession and Catechisms, 1647)이 있다. 그리고 17세기에 작성된 아주 중요한 신조로 「도르트 신조」(Canon of Dort, 1618)와 「스위스 일치서」(Helvetic Consensus Formula, 1675)가 있다.²⁾ 이와 같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

16세기와 17세기의 개혁주의자들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 제시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곧 성경 중심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다.³⁾ 그러므로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성경 중심 사상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고백한다. 로마천주교회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중히 여기지만,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이나 전통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루터가 로마천주교회의 부패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지만, 그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경과 이성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 자신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와 교회 당국자들이 모인 보름스 회의 앞에서, “성경의 증거와 이성이 어긋나지 않는 한 저는 아무 짓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슈벵크펠드(Schwenkfeld)와 같은 영합주의자(Spiritualist)는 성경적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직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2) Donald K. McKim, ed.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2), p. vi.

3) Sinclair B. Ferguson & David F. Wright ed. *New Dictionary of Theology*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8), pp. 569-570.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도 체험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이성이나, 직관, 체험,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에 호소한다. 다른 것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성경만은 무오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신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성경을 기독교인의 인식 기초로 삼았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며, 의롭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다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제한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칼빈은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라고 하였다.⁶⁾

칼빈은 성경을 모든 인식론의 기초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확신하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요 그의 말씀 자체이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며 성경의 증거가 모든 증거보다 강한 증거이기 때문이다.⁷⁾ 칼빈은 이러한 신학적 전제 위에 신학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곳에는 결코 가지 않았다. 그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 것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였다. 또한 그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하지 않고, 신비한 부분을 그냥 신비한 채로 남겨두기를 좋아했다. 칼빈의 신학을 지배했던 것은 철학이 아니었고, 정반대로 칼빈주의 철학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

다”⁸⁾ 그래서 그는 언제나 ‘철학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물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것만 믿고 따르며, 시고하려 한 성경 중심적 신학이었다.

칼빈의 성경 중심적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 되었다. 청교도들에게도 성경은 신학의 출발점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널리 전개하였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는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뉴잉글랜드의 하버드대학에서 신학 교제로 널리 사용된 바 있는 「신학의 정수」(The Marrow of Theology)에서 신학 활동에 있어서의 성경의 중심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의 교육과 건덕을 위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다. ... 따라서 성경은 부분적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신앙과 도덕의 규범이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관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될 수 없으며, 모든 곳에 필수적일 수 없다.”⁹⁾

이와 같은 에임스의 성경 중심적 사상은 모든 청교도의 신학이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가 계급 구조적인 감독 정치를 부정하고 장로 정치를 주장한 것도 성경을 통하여 얻은 것이었고,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이 미신적인 예배를 부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것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성경대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개혁주의자들의 성경중심 사상은 그들이 작성한 신앙고백의 첫 부분을 성경에 대하여 다룬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6) 미어, 전제서, p. 81.

7)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Durham, N. C.: The Labyrinth Press, 1983), I. xxiv, 15, 16.

4)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vi. 1.
5) *Instr.*, VI. vii. 1-3

신앙고백의 서두에서 성경에 대해 다루므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취리히의 개혁주의 신학자 하인리히 불링저와 마이코나우스(Myconius, 1488-1552)가 1536년 작성한 「제 1 스위스 신앙고백서」와 그것을 수정한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 아일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가 1615년 작성한 「아일랜드 신앙고백서」(Irish Articles of Religion)는 다른 교리를 논하기 전에 성경관을 먼저 다루었다. 또한 영미권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들의 신앙의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을 다른 어떤 항목보다 먼저 다루므로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전개하였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적권위를 주장한다.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 평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였고(1:2),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1:4).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을 매듭짓고, 모든 회의의 결정, 고대 저자들의 의견, 사람들이 만든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될 때 최고의 심판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하였다(1:10). 이와 같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신학 활동의 알파와 오메가로 이해하여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는 침묵하는 성경 중심적인 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은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의 중심적 사역을 강조하는 점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믿는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인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까지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었고, 육체와 영혼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자연인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로 죽어 있어 스스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할 수 없다. 곧 자연인의 자유 의지는 부패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거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공휟과 은혜를 바랄 뿐이다.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 속에 있을 때, 어떤 이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다른 이는 버려질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때,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혀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호령 있게 부르신다.”⁸⁾

개혁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사상에 근거하여 예정론을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로 간주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의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증거하였고(엡 1:4), 5세기의 성자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은 이를 체계화하여 예정교리를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간주하였다. 854년 리옹 교회회의(Council of Lyons)에서 예정 교리를 정통 교

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1.

리로 인정하였고, 중세의 수도사 콧차크(Gottschalk)와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John Wycliff), 심지어 루터와 신학의 기초를 놓은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와 멜랑톤(Philip Melancthon)도 예정론을 성경적인 교리라고 주장하였다.⁹⁾

③ 하나님의 주권 사상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 실현된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개인적인 성회를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였다.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개혁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자들은 개인의 구원 과정에서 성화를 강조한다. “감리교도는 죄인의 구원을 제일 앞에 놓고, 침례교도가 중생의 신비를, 루터교도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며, 모라비아교도가 그리스도의 상치를, 헬라 정교회가 성령의 신비를, 로마천주교도가 교회의 보편성을 제일 앞에 놓지만, 개혁주의자는 항상 성회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삼는다.”¹⁰⁾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도성이 교회 가운데 증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나 교황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신 그리스도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장로교적 교회정치 형태」(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Government and of Ordination of Ministers)는 그리스도의 왕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 어께에는 정

9) 미터, 전계서, p. 32.

10) Mason W. Pressly, *Calvinism and Science*, (Ev. Rep. 1891), p. 662 f. 미터, 전계서, p. 26에서 재인용.

사를 메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그 밑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라.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 이는 만물을 총만케 하려 하심이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함이요, 성도를 온전케 함이다.”¹¹⁾ 개혁주의자들은 하늘과 땅,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관자인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교직자를 세우시고, “율법과 권징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행적으로 다스림으로 왕의 직분을 행사하신다”고 믿는다(대요리문답 6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지기인 교직자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혁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일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장악하신 온 천하의 통치자임을 고백한다. 온 세상은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것이다. 그의 통치는 선택된 백성의 모임인 교회만이 아니라, 천사와 사단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와 지구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계에도 미쳐야 한다. 넓게는 온 우주가 그의 지배 영역이 되어야 하고, 좁게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

11) *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in *The Confession of Faith* (Scotland: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83), p. 397.

여야 한다. 이런 신앙에 기초하여 쾨빙글리와 불링저는 웨리히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부처(Martin Bucer)는 스페르스부르그를, 칼벤은 제네바를, 닉스(John Knox)와 리더포드(Samuel Rutherford)는 스코틀랜드를, 위그노(Huguenots)는 프랑스를, 청교도들은 영국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네덜란드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성경에 근거한 법을 만들었고, 법이 다스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갔다.¹²⁹

개혁주의자들은 누구도 법을 거스릴 수 없고, 법을 무시하거나 어긴지는 하나님이 새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본다. 닉스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Mary of Scot)이 법이 금한 미사를 집행할 때 설교를 통해 여왕의 불법을 지적하였고, 사무엘 리더포드는 찰스 1세(Charles I)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폐지하고 성공회를 국교로 삼으려고 할 때 왕도 법을 어길 수 없고 법을 어긴 왕은 법에 의해 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인 영역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슐텐(J.H. Scholten), 파비우스(P. D. Favius), 와필드(B. B. Warfield) 등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개혁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하였다.¹³⁰

2. 한국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

그러면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보수 신학의 기두였던 박형

룡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인 전통을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였다.¹⁴⁾ 곧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이 대륙의 개혁주의 신학과 무관하게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된 신학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복운 박사는 그의 논문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서 한국 교회의 신학을 “유럽의 칼빈주의와 영미의 청교도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구현된 신학, 즉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한국에 소개된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것인가? 한국에 신학을 전수해 준 사람들이 영미 중심의 영어권 선교사들이었고, 한국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문서들이 대륙의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박형룡 박사의 지적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학은 영미의 신학만이 아니라 대륙 교회의 개혁주의적 신학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소개된 청교도적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출발점으로 하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으로 전개된 개혁주의, 그리고 영국의 많은 교인들에 의하여 개혁주의 사상이 경건과 정열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독특한 신학적 특징들이 가미되어 이루어진 청교도주의, 이러한 두 요소가 한국 장로교 신학의 전통이 된 것이다.”¹⁵⁾라고 지적한 신복운 박사의 주장이 좀 더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혁주의 신학의 전수

12) 이점은 개혁파가 루터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J. W.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 Ohio: 1980)을 참고하라.

13) 미터, 전제서, p. 32.

14)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권 3집 (1976 가을), p. 11.

15) 신복운,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학정론』, 제10권 1호, (1992. 3), pp. 115-116.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채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① 선교사의 영향

첫째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영향이다.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철두철미한 개혁주의 신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펴낸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1922년 당시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는 40여명이었다. 그 가운데 16명이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이었고, 11명이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이며, 4명이 샌 앤젤로 신학교(San Anselmo Theological Seminary), 3명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이었다.¹⁶⁾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1922년이므로, 이적도 미국의 신학교들이 쇠퇴화 되기 전이었다. 특히 프린스턴과 맥코믹 신학교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는 당시 미국에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 와서 선교하였던 선교사들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던 분들이었다.

비록 선교사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후세를 지도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다른 신학을 가르치면 개혁주의적일 수 없다. 그러나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들은 대부분이 철두철미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 신복윤 박사는 한국 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은 평양신학교가 강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하였다. 곧 “평양신학교는 1936년까지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1890년 한국에 온 마포삼델(Samuel A. Moffet, 1864-1939, 설립자), 1902년에 온 궤안관 박사(Allen D. Clark, 1878-1961, 설교학, 교리학), 그리고 1892년에 온 이윌서 박사(William D. Reynolds, 1905년 사망, 조직신학) 등 세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들은 엄격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¹⁷⁾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었던 박행룡 교수나 박윤선 박사와 같은 분들도 다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고, 그들에 의하여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 땅에 토착화 되었다.

② 교회의 노력

둘째로, 개혁주의 신학을 수용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있었다. 1907년 9월 17일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노회가 조직되었다. 이 노회를 “대한 예수교 장로교 노회”(독노회)라고 부르는데, 독노회는 1904년 영국 장로교회가 인도의 장로교회를 위하여 작성한 「12 신조」를 그들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였다. 그들은 「12 신조」를 채택하면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고(毋)교회의 교리적인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독노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가장 성경적인 신조로 인정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문답 책으로 채택하였다. 「12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성녀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 성령의 2중적인 발현, 인간의 예정, 불가항력적인 은혜,

16)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Annal

Report, 1922, p. 17, 신복윤, 전게서, p. 116n에서 개인용.

17) 신복윤, 전게서, p. 121

18) 「대한 예수교 장로교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1976), p. 17.

성례와 유체적인 부활, 최후의 심판과 같은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을 골간으로 한다.¹⁹⁾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성경의 무오설, (2) 하나님의 절대성, (3) 삼위일체론, (4) 하나님의 창조, (5) 인간 창조, (6) 인간의 타락, (7) 그리스도의 속죄, (8) 성령의 말씀, (9) 예장론, (10) 성례, (11) 신자의 본분, (12) 부활과 심판이 그 중심적인 내용이다.²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채택하므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집을 세우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였다. 김윤찬은 「교회 정치문답조례」 서문에서 한국 교회의 초기 치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도 일찍이 공의회 시대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 정신에 준하여 교회를 다스리다가, 1917년 제 6회 총회에서 동 헌법을 적당하게 수정하여 채용하게 되었고, 그 후 수차 수정되었다.”고 하였다.²¹⁾ 김윤찬의 증거로 미루어 보아, 한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교회 정부 형태론」(Form of Church Government)을 교회의 채택하여 개혁주의적인 교회 정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교회 정치의 원리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예를 가르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 책만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데는 많은 문제가 생겼다. 좀 더 구체적인 치리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19년 장로교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교회 정부 형태론」을 가장 잘 해석한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치리 해석서로 채택하였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1917년 초대 선교사 콕안(C. Allen Clark) 목사가 하지 박사(Dr. J.

19) Lark-Ge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2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p. 389.

20)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서울: 성경임가사, 1985), p. 71.

21) J. A.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박병진 역, 「교회정치 문답조례」, (서울: 성광문화사, 1980), 서문.

Aspinwall Hodge)의 「장로교 법은 무엇인가」(What is Presbyterian Law?)를 국역한 것이다. 번역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병진 목사는,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축조 해석하여 민족 장로회의 해석 조문을 모두 참조하여 문답식으로 해설하여 편성한 치리상의 지침서요, 1919년에 제 8회 총회가 일찍이 본서를 그 참고서로 정식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적합한 치리 모범이 무엇이라?」고 반문했다.²²⁾ 이와 같이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 문답조례」를 채택하여 교회 정치를 개혁주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를 얻게 되었다.

한국 장로 교회는 「12 신조」, 「소요리문답서」, 「교회정치 문답조례」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서」를 표준문서로 채택하였다. 1963년 합동 총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앙의 표준문서로 채택하였으나, 1963년 이전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서」를 “정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3년 합동 총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서」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채택하였고, 1969년에는 고신 쪽이 이를 공식인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1981년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파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서,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선언하여 창교도적인 개혁주의를 우리의 신학으로 채택하였다.²³⁾

③ 문서 운동

셋째로,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한 것

22) *Ibid.*,

23) 신복운, 전제서, p. 119.

은 문서운동이다. 한국 교회에 소개된 많은 책들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890년 호레이스 언더우드 가 한국인을 위해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번역하여 최초의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하였다. 1918년에는 「신학지남」이 평양신학교의 기관지로 창간되어 개혁주의 신학을 대변하게 되었다. 1929년에는 메이첸의 「신앙이란 무엇인가」(What is Faith?)가 함일문(Floyd Hamilton) 선교사에 의하여 번역되었고, 1937년에는 구제인(John Curtis Crane) 선교사에 의하여 한국 최초의 개혁주의적인 「조직신학」이 저술되었다.²⁴⁾ 1937년에는 비트너(Lorane Boettner) 박사의 「예장론」(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이 박형룡 박사에 의하여 번역되었다.²⁵⁾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 도서의 보급으로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2) 한국교회와 개혁주의적 전통

그러면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의하여 발전된 한국 교회 내의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① 성경중심 사상

첫째로, 성경 중심적 사상이다. 1890년 한국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던 마포삼열(Samuel Moffet) 박사는 1909년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에 대해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선교회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철

저한 믿음과 열정적인 복음정신을 특징으로 지냈다.”고 서술했다.²⁶⁾ 3년 뒤 발행된 「인터내셔널 미션 오브 리뷰지」(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는 초대 한국 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성경에 대해 강조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에는 “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널리 퍼져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성서를 그들 생활의 핵심부에 가져다 놓고 있었다”고 하였다.²⁷⁾ 뛰어난 선교사도 한국 선교지역에서 성경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성경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였다.²⁸⁾ 그리고 선교사들은 1920년 평양신학교 설립 목적을 확인하면서, “본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요, 모든 행위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심으로 믿으며, 바로 이해하고, 중심으로 사랑하며, 명확히 해석하며,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또는 순수하게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데 그 목적으로 둔다”고 하였다.²⁹⁾ 1935년 「미국 장로교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블레이크(Herbert E. Blair) 선교사도 한국에서는 “성경만이 강조되었으며, 성경만이 연구된 교과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과 장로교 정치 형태를 채용한 장로교인들은 역사적 칼빈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구 포린스톤처럼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없이 확실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였다.³⁰⁾ 이와 같이 한국 장로

26) Harriet Pollard,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ersonnel," 1972년 Northwestern 대학교 석사 논문, p. 26.

27) G. H. Jones, "The Growth of 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1912, vol. 1, No. 3, p. 41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47에서 재인용.

28) Charles A. Clark, *The Nervo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pp. 121, f. 신복윤, 전제서, p. 118에서 재인용.

29) *Ibid.*, p. 120.

30) Herbert E. Blair,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24) 이 책은 1954년까지는 활자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강의 안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5) 신복윤, 전제서, p. 21.

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였다.

한국 교회의 성경공부 운동은 1890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중국 지푸에 와 있던 네비우스(John Nevius)를 초청하여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네비우스는 자립 보급, 자립 선교, 자립 정치를 선교 정책으로 제시하고,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 영역에 적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권장의 원리를 채택할 것과 교회 정치 원리를 찾아야 함을 권면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또는 고국에 있는 교회가 보통 실시하는 대로 훈련을 실시한다. 처음에는 권면과 훈계로 시작하여 필요하면 권징과 수관 정치 등을 할 수 있다. 몇 달에서 1년 내지 2년까지의 다양한 자격정지 기간 후에 그래도 회심하지 못하면 제명시킨다고 했고,"³¹⁾ "반약 '무엇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신앙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은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에 대해 민경배 교수는 "상서의 교훈에 따라 엄격한 생활과 치리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였고,³³⁾ 김영재 교수도 성경이 중심적인 생활과 일을 강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네비우스의 제안을 따라 장로교 선교사들은 1891년 성경공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간에 다 이 성경공부반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1904년의 보고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습 교인을 포함한 교인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성경공부반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의 선교부 구역에만해도 약 800여 개의 성경공부반이 있었다."³⁴⁾ 이와 같은 성경공부반은 사경회

of the Korea Mission, p. 121; 박형룡, 전게서, p. 19에서 재인용.

31) 존 네비우스, 「네비우스 선교방법」 김남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 81.

32) Ibid., p. 91.

33) 민경배, 전게서, p. 157.

의 기초가 되었고, 1930년대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심령 수련회, 심령부흥회로 변질되었고, 최근에는 선교 단체의 영향으로 단편적인 성경지식을 얻거나 구원만을 강조하는 체치 훈련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다.

② 하나님 중심 사상

한국교회가 유난히 강조해 온 사상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하나님 중심 사상 또는 신본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만 있었지 세속영역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무시되어 왔다.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입각하여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강조해 왔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자들은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라는 동식으로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

③ 주일 성수 신앙과 절제 생활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 책임자였던 브라운(Arthur Judson Brown)은 한국 교회를 방문한 후 쓴 책에서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적인 신앙인이었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춤이나 휴연이나 카드 놀이를 죄악시하였다. 체벌론에 있어서는 전천년기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다.³⁵⁾ 브라운 박사가 한국 교회의 신앙을 청교도적이었다고 한 것은 철두철미한 성경 중

34)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학협회, 1993, p. 123.

심적인 사상과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그리고 주일 성수의 실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는 선교 초기부터 철저하게 지켜져 왔다. 언더우드나 마포삼열과 같은 초기 선교사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던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한국 교회에 적용한 인물들이었다. 네비우스는 1890년 선교 정책 세미나에서 성경 중심적인 선교를 강조하면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주일 성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2)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 (3) 자비롭고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 (4)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 (5)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명령은 사람의 최선 최상의 행위를 위해 도움을 주고 방해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단언하였다.”³⁶⁾

이와 같은 초기 선교사와 네비우스의 주일 성수 신학은 한국 교회에 토착화되어 한국 교회의 신학적 유산이 되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아예 일요일을 주의 날로 상거래를 금하였다. 그래서 일제 시대에 북한의 선천과 철산 지역에서는 5일마다 열리는 장들이 주일에는 칠시될 정도였다. 한국 교회는 또한 주일 성수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여 왔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예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다. 1946년 11월 3일 김일성 집단이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할 때 북한 5도 연합회는 10월 20일 모임을 갖고 총선거 거부 결의하였다. 선거 구부를 결의하게 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선언하기를, “성수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35)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p. 540; Harvie M. Conn,

한국장로교 신학사상, p. 2; 신복윤, 전계서, p. 116에서 재인용.

36) 네비우스, 전계서, p. 77.

이외에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⁷⁾ 두번째 예가 1995년 봄에 북음주의 협의회의 주도 아래 추진된 주일날 각 중학교 졸업자격을 검정고시 실시의 폐지 운동이었다. 이와같이 한국 교회는 창교도적인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금주와 금연, 아편 금지 운동에도 앞장서서 한국 사회의 향도의 역할을 했다.³⁸⁾

3. 개혁주의 신학의 과제

한국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이어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혁되어야 할 점이 많다. 특별히 1960년대 이후 시작된 혼합주의적 신학 운동과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교회주의와 물방주의는 개혁주의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하였다. 교회의 이러한 타락은 예배와 교회 정치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예배의 개혁

먼저 예배의 개혁이 필요하다. 16 세기의 종교 개혁은 어느 면에서 예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중세의 미사 중심적인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어 놓았다. 쾰빙글리나 칼빈은 루터의 개혁 사상을 발전시켜 예배의 핵심을 실교 중심으로 만들었다. 곧 제단 중심의 예배를 강단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 강단 중심의 예배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 되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철저한 개혁주의적 예배를 실천하여 왔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예배는 점차로 강단 중심에서 제단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예배가 말씀 중

37) 평안전, 「한국교회사」(서울: 기독교서회, 1961), p. 203.

38) 이만열, 전계서, p. 106 참고.

심에서 의식 중심으로 변하게 된 이유로는 예배에서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전주의자의 영향과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신학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체계에서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가 무시되어 설교가 단지 인간의 말로 전락하므로 자연스럽게 의식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중심적 예배를 강조해 왔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예배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쾰른은 인위적인 예배는 가증하다고 생각하여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예배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사람들의 심사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이는 것이라도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배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펜터마임이나 연극을 예배로 간주하거나, TV와 비디오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자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예배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성경이 명한 바 없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에 불과하다(레 10:1-2). 그리고 영적인 예배로의 예배 갱신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빈야드(Vineyard)운동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비주의 운동이다. 그들은 웨이커의 후손으로 진동이나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경적 예배에 도전하고 있다.

(2) 교회 정치의 개혁

물론 교회 정치에서의 비개혁주의적인 요소의 개혁이다.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아무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벧전 2:8-9), 모든 성직자는 그리스도 밑에서 동등한 자들이다(벧전 5:1).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제도의 계급화

를 배척한다. 누구도 다른 행재를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의 일을 간섭하거나 주권할 수 없다.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평등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 직분을 계급 구조로 오택한 경우가 많이 있다. 장로 가운데 수석 장로가 있고, 담임목사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담회장이라는 칭호를 더 좋아하고,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것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히 비개혁주의적인 것이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지교회의 자율을 주장한다. 개혁주의자들이 지교회의 자율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두어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지교회의 자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교회를 계급구조화 할 수 있으며, 둘째로,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주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한국 교회는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맡아 다스리는 공석목회(absenteeism)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대교회가 지방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의 이름을 따라 교회명을 붙이고, 목사를 피송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은 감독정치(감독)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지역 교회의 자율과 평등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교훈에서 떠난 것이다. 성경을 교회정치의 원리로 채택하는 개혁 교회는 결코 그러한 지교회(支教會)를 인정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개교회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개교회주의도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주권의 확장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회 영역에 확장하는 일이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

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곧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개혁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 장로 교회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편중된 입장에서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참여의 대상을 인권 문제에 국한시키나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적인 것에만 제한시킨다. 곧 자유주의자들은 민주화와 노사문제 등의 5계명에서 10계명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는 강조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우상숭배 문제나 주일 성수와 같은 1계명에서 4계명에 관련된 것만을 신앙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는 1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이 사회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 참여 방식도 문제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든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파울소를 습격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파괴적인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처럼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세속권과 교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교 분리 사상을 취하지 않고, 세속과 교회 영역은 각기 기능을 인정하고 상호상조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정교 구분 사상을 주장한다. 이것이 칼빈이나 녹스와 같은 개혁주의자의 입장이었다. 그들은 국가 계약을 주장하면서 폭군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장로 교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학 원리에 근거하여 교회의 사회 참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폭정을 일삼던 정부의 정책에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파동, 1970년대 일인 독재를 위해 만들어 놓은 10월 유신에 대하여 침묵하였다. 더구나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조찬기도회를 열어 이를 정당화하여 주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사상이 어떻게 한국에 소개되었으며, 한국 기독교 속에 남아 있는 개혁주의적 요소와 앞으로 더욱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우리가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이다.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hardware)는 있는데 소프트웨어(software)가 없는 것과 같다. 즉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과 성경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남겨진 과제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실천하여 사회의 구성요소에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거나 사회 개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영혼 구원과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선교 2세기를 맞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과제라고 생각한다.